

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산에 따른 긴급사태 조치에 관하여

○ 현에서는 현민 여러분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으로 바이러스 감염·확산 방지를 위해 주말에 불필요한 외출을 자제해 주시길 요청한 바 있습니다. 현재 본현의 확진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여 병원 등에서의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4월 7일, 정부는 후쿠오카현을 '긴급사태 선언' 대상 지역에 포함시켰습니다.

○ 이에, 5월 6일까지 긴급사태 조치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.

○ 현민 여러분께는 아래와 같이 당부 말씀드립니다.

(1) 생활 유지에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외출을 삼갈 것

※생활 유지에 필요한 경우란, 의료 기관의 통원, 식료품·의약품·생필품의 구매, 직장 출근, 야외에서의 운동 및 산책 등을 말합니다.

(2) 직장 출근은 외출 자제 요청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나 자택 근무, 시차출근, 자전거 통근을 실천하여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할 것

(3) 불필요한 귀성 및 여행 등 도도부현을 넘나드는 이동은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피할 것 (이는 도시 봉쇄(록다운)와는 다릅니다)

(4) 감염 확산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행사·이벤트 개최를 삼갈 것

(5) 식료품과 생필품 소매점 등 생활에 필요한 사업은 유지되므로 식료품·의약품·생필품의 사재기를 하지 말 것

아울러 아래 사항에 대해서도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.

(1) 통풍이 잘되지 않는 '밀폐 공간', 다수가 모이는 '밀집 공간', 서로 간의 거리가 가까운 '밀접 공간' 등 집단 감염의 위험을 높이는 3 가지 조건이 동시에 겹치는 일이 없도록 할 것

(2) 손 씻기와 기침 예절을 철저히 지킬 것

(3)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보건소에 설치된 '귀국자·접촉자 상담 센터'에 전화하여 상담을 받을 것

(4) 발열과 기침 등의 감기 증상으로 평소 다니는 병원의 진찰을 받을 시에는 직접 방문하지 않고 반드시 사전에 전화로 상담할 것

(5) 해외 출국 이력에 관한 외무성의 권고·지시를 따를 것

- 현재, 감염과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대단히 중요한 시기, 기로에 놓여있습니다. 현민 한분 한분의 자신을 지키기 위한 행동, 주위 사람을 지키기 위한 행동이 1주 후, 2주 후의 이 지역, 그리고 일본 전체의 상황을 결정하게 됩니다. 현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.